

KIEP

오늘의 世界經濟

World Economy Update

제 04 - 09호/ 2004년 4월 28일 발간

미국의 對리비아 경제제재 완화 배경 및 의의

작성자: 박영호 세계지역연구센터 동서남아팀 전문연구원
【parkyh@kiep.go.kr, ☎ 3460-1231】

主要內容

- 미국은 리비아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계획 포기를 대가로 지난 1986년부터 18년간 유지해온 對리비아 경제제재 조치를 4월 23일 일부 해제하였음.
- 또한 미국은 금번 조치를 계기로 리비아의 WTO 가입반대를 철회하고, 리비아가 세계경제에 편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혀 리비아의 WTO 가입도 가능하게 되었음.
- 이같은 조치는 장기간 단절되어온 미국-리비아간 외교관계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이자 리비아의 국제사회 복귀를 위한 전주곡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금번 조치로 양국간 교역은 물론 리비아 석유산업 등에 대한 미국기업의 자유로운 투자활동이 가능해져 미국과 리비아간 경제교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됨.
- 국제적 고립으로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온 리비아는, 1999년 4월 UN의 경제제재 해제에 이은 금번 미국의 경제제재 완화를 계기로 외국인투자 유치확대 등 개혁·개방화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됨.

對外經濟政策研究院

1. 경제제재 완화 내용

- 미국은 리비아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계획 포기를 대가로 지난 1986년부터 18년간 유지해온 리비아에 대한 경제제재 조치를 4월 23일 일부 해제하였음.
 - 부시 대통령은 백악관 성명을 통해 리비아가 대량살상무기 개발계획을 포기하기로 한 데 대한 외교적 조치의 일환으로, 무역·투자 금지조치 해제 및 “이란-리비아제재법(ILSA)” 철폐 등 對리비아 경제제재조치를 해제하고, 트리폴리에 미국의 연락사무소를 개설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음.
- 금번 조치로 양국간 교역은 물론 리비아 석유산업 등에 대한 미국기업의 자유로운 투자활동이 가능해져 미국과 리비아간 경제교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미국의 석유회사들이 그동안 금지되었던 리비아 석유수입과 투자활동에 자유롭게 나설 수 있게 됨으로써 미국과 리비아간 교역 및 투자가 활기를 띠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미국은 금번 조치를 계기로 리비아의 WTO 가입반대를 철회하고, 리비아가 세계경제에 편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혀 리비아의 WTO 가입도 가능하게 되었음.
- 이같은 조치는 장기간 단절되어온 미국-리비아간 외교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이자 리비아의 국제사회로의 복귀를 위한 전주곡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그러나 미국은 금번 경제제재 해제조치에서 리비아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지 않음으로써 리비아에 대한 무기수출은 계속 금지하기로 하였음.
 - 또한 1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미국내 리비아자산에 대한 동결조치도 풀리지 않았으며 양국간 직항노선도 여전히 금지됨.

- 하지만 리비아가 테러리즘과의 관계를 완전히 청산하고, 미국 팬암기 폭파사건(1988년) 유가족에 대한 보상문제를 원만히 마무리한다면 이러한 제재조치들도 그리 어렵지 않게 해결될 것으로 기대됨.

□ 한편, UN은 1992년부터 리비아에 대해 부과해온 경제제재조치의 효력을 1999년 4월부터 정지시켰으며, 이어 2003년 9월에는 리비아에 대한 제재조치를 전면 해제하였음.

- UN은 1992년 1월 미국 팬암기 폭파사건의 용의자(2명)의 신병인도를 리비아측에 요청했으나 리비아정부가 이를 거부하자 동년 3월 제1차 경제제재조치(항공운항 및 군수장비 판매금지)를 취한 데 이어, 1993년 12월에는 제재조치를 더욱 강화한 제2차 경제제재조치(리비아정부 및 기업의 해외금융자산 동결, 원유정제 및 원유수송관련 장비의 수출입 금지)를 단행하였음.

○ 리비아는 미국 팬암기 폭파 테러범의 인도를 거부함으로써 1992년부터 UN의 경제제재를 받아왔으나, 1999년 테러범을 UN측에 인도하기로 태도를 바꿈에 따라 UN의 경제제재가 해제되었음.

○ 12년간 팬암기 폭파사건 용의자의 신병인도를 거부해 오던 리비아가 전격적으로 용의자를 인도한 것은, 그동안 UN의 경제제재로 인한 국제적 고립과 경제적 손실로 국가경제가 파탄에 직면한 가운데 1997년말부터 시작된 유가폭락이 경제위기를 초래하였기 때문임.

2. 경제제재 결정경위

□ 미국은 리비아를 국제테러리즘을 조장, 지원하는 국제평화질서의 교란자로 단정하고 오래 전부터 일련의 경제제재를 취해 왔음.

- 미국은 리비아에 대해 지난 1981년 12월 미국인의 리비아 여행금지 및 리비아내 미국기술자 철수를 담은 제1차 제재조치를 발표했으며, 1982년 3월에는 리

비아산 원유수입 금지, 미국상품의 리비아 수출금지 등을 담은 제2차 제재조치를 발표했음.

- 1986년에는 추가로 미국내 리비아 자산동결, 리비아와의 모든 상업거래 중단 등의 경제제재조치를 단행함과 동시에 가다피궁을 비롯한 주요 군사 및 산업 시설에 대한 폭격을 단행하기도 했음.

□ 이러한 가운데 1988년 12월에는 영국발 뉴욕행 美팬암기(Pan Am 103)가 스코틀랜드 로커비(Lockerbie) 상공에서 폭파되어 탑승자 259명, 지역주민 11명 등 총 270명이 사망하는 사건(일명‘로커비 사건’)이 발생했음.

- 당시 이 사건은 희생자의 절반가량이 영국에 유학중인 미국 유학생들로, 크리스마스를 맞아 귀향하던 길에 발생한 것으로 전세계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음.

□ 미국의 리비아 경제제재조치는 1996년 8월 “이란-리비아제재법(ILSA)”의 발효를 계기로 정점을 이루었으며, 그 이후에도 미국은 리비아 제재조치를 계속 연장해 왔음.

- 일명 “다마토법”으로도 불리우는 “이란-리비아제재법”은 1996-2001년까지의 한시적인 법률로서 외국기업이 이란과 리비아에서 석유 및 천연가스를 개발하는 것을 저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었음.

- 즉, 동 법은 미국정부로 하여금 이란과 리비아의 석유 및 천연가스 개발에 투자(연간 2천만 달러 이상)하는 외국기업에 대해 미국 수출은행 및 금융기관의 금융지원 단절, 미국정부 구매프로젝트에의 참여 금지, 관련회사 제품의 미국내 수입금지, 수출허가 발급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1999년 4월 UN의 리비아 경제제재 효력정지 결정을 계기로 미국의 리비아 제재조치도 일대 전환점을 맞이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었으나, 2001년 1월 취임한 부시대통령은 같은 해 8월 추가적으로 5년을 연장하였음.

<표 1> 이라크 경제제재 주요 일지

일자	주요 내용
1998.12	美팬암기(Pan Am), 로커비(Lockerbie) 상공에서 폭파(270명 사망)
1989.9	프랑스 UTA 항공기, 니제르 상공에서 폭파(171명 사망)
1991.10	미국·영국, 팬암기 폭파혐의로 리비아 정보요원(2명) 기소 프랑스, UTA 폭파혐의로 리비아 정보요원(4명) 기소
1992.4	UN, 로커비사건 용의자 신병인도요청 거절에 따른 경제제재발효 (민간항공기 운항금지, 군수장비 판매금지 등)
1993.11	UN, 경제제재조치 강화(리비아 해외자산 동결)
1996.8	미국, 2차 경제제재조치 단행(리비아 석유가스부문에 연간 2천만 달러 이상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제재)
1999.4	리비아, 로커비 용의자(2명) UN측에 신병인도 UN의 경제제재조치 잠정중단
1999.7	영국·리비아, 외교관계 회복 합의
2001.8	미국, 이란·리비아 제재법(ILSA) 5년 연장
2001.9	가다피, 9.11 자살폭탄테러 비난(미국과의 관계개선 의도)
2003.8	리비아, 로커비사건관련 보상금(27억달러) 지급 합의
2003.9	UN, 리비아에 대한 경제제재 완전 해제
2003.12	가다피, 대량살상무기(WMD) 개발계획 포기선언
2004.3	미국, 미국인의 리비아 여행금지 해제 영국 토니블래어 총리, 리비아 방문
2004.4	미국, 리비아 경제제재 일부 해제

자료: EIU

3. 경제제재 완화 배경

□ 가다피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계획의 포기선언은 금번 미국의 對리비아 경제제재 완화조치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 2003년 12월 가다피의 대량살상무기 개발계획 포기선언 직전에는 미국의 제재 조치 해제는 미국의 대선(2004년 11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었음.

- 대량살상무기 포기선언의 배경은 오랜 국제적 고립과 경제제재를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는 리비아정부의 인식과 미국의 이라크 공격에 따른 가다피 원수의 위기감이 자리잡고 있었음.
 - 또한 대량살상무기 포기를 통해 정권유지를 보장받고 경제적 실리를 동시에 얻겠다는 의도가 내포해 있다고 볼 수 있음.
- 가다피의 전격적인 대량살상무기 개발계획의 포기선언을 계기로 리비아는 국내외적으로 전례 없는 대전환점을 맞고 있음.
- 2004년 3월에는 미의회 일행이 20여년전 양국간 외교관계가 단절된 이후 처음으로 가다피의 의회연설에 참석, 최근 리비아의 국제사회로의 복귀노력을 높이 평가하였음.
- 리비아는 미국의 20여년간에 걸친 경제제재로 침체된 경제를 되살리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거듭해 오고 있음.
- 2001년 9.11 사태 이후 리비아는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테러지원국의 지위를 벗기 위해 로커비문제 해결에도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 왔음.
 - 2003년 8월에는 미국 펜암기 폭파사건 피해자 유족에게 27억 달러를 배상하기로 합의하였음.
 - 유족에 대한 리비아 정부차원의 배상은 리비아의 테러지원국 지명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리비아는 배상을 거부해 왔음.
- EU 국가들은 미국의 리비아 경제제재가 장기화되면서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었음.
- 특히, 1996년 8월 클린턴 대통령이 서명한 “이란-리비아제재법”에 대해 이는 기업의 자유로운 거래와 주권을 침해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며 자유무역 저

해행위로 WTO에 제소한 바 있음.

- 그 결과 EU와 미국은 상호 양해각서를 통해 유럽기업에 대해서는 상기 법률의 예외조항을 적용해 제재조치를 부과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음.

□ 그동안 미국의 리비아 제재조치에 대해 대체로 동조해 왔던 영국도 최근 들어 리비아와 새로운 관계정립을 시도해 왔음.

- 지난 3월 25일에는 토니블레이어 영국 총리가 윈스톤 처칠 이후 60년 만에 처음으로 리비아를 전격 방문하여, 국제테러리즘 방지를 위한 “새로운 파트너”로서 협력관계를 강조하였음.
- 이같은 영국총리의 역사적인 리비아 방문은 가다피의 대량살상무기 개발포기 선언을 계기로 리비아와의 관계정상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에 따른 것이었음.
- 이외에도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도 리비아와의 경제적 관계를 고려, 경제제재 해제를 지지하는 입장을 보여 왔음.

□ EU 국가들이 미국의 리비아 제재조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온 것은 상호 경제적 의존도에 기인함.

- 리비아는 교역의 60-70%를 유럽시장에 의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EU 국가들의 투자 및 기술지원에 대한 의존도도 매우 높음. EU 국가들 역시 리비아 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으며 향후 리비아의 시장잠재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음.

□ 미국내에서도 미국의 경제제재조치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강하게 제기되면서, 미의회 및 재계는 경제적 실리와 인도적 차원에서 리비아 경제제재를 해제해야 한다며 미행정부에 대한 압력을 강화해 왔음.

- 특히 경제제재로 리비아 유전개발 진출이 불가능해진 미국의 석유메이저들은

리비아의 유전개발 개방방침 발표와 동시에 유럽 석유메이저들의 리비아 유전개발 진출이 본격화되자 유럽기업들에게 개발이점을 선점당하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제기해 왔음. 이러한 입장에 대해 일부 의원, 학자, 전직 관료 등도 적극 동조하였음.

4. 경제제재 완화에 따른 예상효과

가. 외국기업의 진출확대

- 금번 미국의 경제제재 완화조치를 계기로 교역확대는 물론 미국기업의 투자활동 재개로 미국과 리비아간 경제교류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
 - 미국의 경제제재 완화조치는 지난 1980년대 리비아내 자산을 포기한 채 철수했던 미국 석유회사들의 재진입을 가속화시키게 될 것임.
 - 이미 유럽의 석유업체들은 1999년 4월 유엔의 리비아 경제제재 중단조치로 경쟁적으로 리비아에 진출하고 있음.
- 미국기업을 비롯한 외국기업들의 리비아 진출은 우선적으로 투자가치가 높은 석유 및 가스부문을 비롯하여 도로, 항만, 공항 등 사회간접자본 건설부문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
 - 막대한 원유를 보유하고 있는 리비아는 대부분의 유전이 육상에 위치해 있어 원유생산비용이 저렴할 뿐만 아니라 주요 원유소비시장인 유럽지역을 접하고 있어 원유수출여건이 양호하기 때문에 외국 석유메이저들의 진출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리비아정부는 경제제재로 취약해진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는 데에도 주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에 대한 외국기업들의 진출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임.

- 리비아의 200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인프라건설 등 개발관련 지출예산이 전년 대비 무려 86%나 증가한 39억 달러에 달하고 있음.

나. 리비아의 경제회복

□ 세계 주요 산유국인 리비아는 1970-80년대에 막대한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경제개발에 주력해 왔으나, UN과 미국의 경제제재로 심각한 타격을 받아 왔음.

- 1992-1999년간 제재조치에 따른 리비아의 경제적 손실규모는 240억 달러로 추정되고 있으며, 1인당 GDP(명목)도 UN의 경제제재조치 직전인 1992년의 7,430달러에서 1999년에는 5,466달러로 위축되었음.

□ 그러나 리비아정부가 로커비사건 혐의자 2명을 UN측에 전격 인도함으로써 UN의 경제제재가 중단되었고 이어 미국의 경제제재도 완화되어 리비아경제가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음.

- 그동안 금수조치에 포함되었던 석유생산 및 정유관련 장비의 거래가 재개되고 국제유가도 상승세를 지속함으로써 마이너스성장을 거듭해 왔던 리비아경제가 침체국면에서 탈피할 것으로 기대됨.

□ 미국계 석유메이저들의 본격적인 유전 및 가스전 개발참여로 상당한 규모의 외자도입이 예상되며, 이에 따라 국제사회의 경제제재조치로 장기간 침체국면에 빠진 리비아경제가 활력을 찾을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석유터미널, 정유공장 관련 장비의 금수조치가 해제됨으로써 그동안 설비 노후화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던 리비아의 원유생산 및 수출이 대폭 증가하여 리비아의 재정상황이 크게 호전될 것으로 예상됨.

- 리비아정부는 현재 1일 16-18만 배럴인 원유생산능력을 오는 2005년에는 25만 배럴까지 끌어 올린다는 목표하에 석유산업부문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보다 적극 유치할 방침임. 이미 리비아정부는 OPEC에 원유생산쿼터 확대를 공

식 요청하였음.

□ UN의 경제제재 해제에 이은 미국의 경제제재 완화조치를 계기로 리비아의 경제개혁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임.

- 리비아는 그간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세계경제에 편입하기 위해 대외관계 개선노력은 물론 경제개혁과 개방화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됨.
- 2003년 6월 총인민회의에서 가다피는 석유, 전기, 관광 등 모든 분야에서의 민영화의 필요함을 지적하고, 이를 위한 외국인투자유치 노력을 보다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음.
- 2002년에는 외국인투자법을 개정한 데 이어 최근에는 에너지개발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등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음.
- 이외에도 민간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공기업에 대한 특혜를 축소하고 무역 촉진을 위해 WTO 가입을 추진하는 한편 수입허가제도 폐지하였음.
- 다만, 중앙집권적 경제운영체제와 리비아 특유의 정치체제하에서 경제제재 해제만으로는 경제개혁과 성장에 한계가 있을 것이며, 향후 국제유가와 OPEC의 원유 생산쿼터 조정여부가 경제회복의 주요 변수가 될 것임.

□ 그동안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로 제약을 받아 왔던 리비아의 외교활동도 정상화 될 것으로 보임.

- 리비아는 그동안의 강경 반미노선에서 탈피하여 친서방정책으로 전환하는 등 외교정책의 대변화를 모색하게 될 것이며,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정상적인 외교활동은 물론 세계 교역질서에 적극 동참, 자유무역거래를 추진할 것으로 보임.

<표 2> 리비아의 최근 경제지표

	단위	1999	2000	2001	2002	2003
실질경제성장율	%	0.7	2.6	0.5	-0.2	4.6
인플레이	%	2.6	-2.9	-8.8	-9.8	2.8
상품수출	백만 \$	7,276.0	14,288.0	12,023.1	11,606.8	14,322.9
상품수입	백만 \$	4,302.0	4,132.0	5,312.0	7,408.0	6,282.0
경상수지	백만 \$	2,136.0	9,257.0	5,516.1	3,111.8	6,521.1
외환보유고	백만 \$	7,279.7	12,460.8	14,800.5	14,307.4	18,593.1
외채	10억 \$	5.1	4.6	4.5	4.4	4.2

자료: EIU.

- 이렇듯 리비아는 미국의 경제제재 완화와 석유수출을 바탕으로 대형 건설 및 플랜트공사의 발주는 물론 경제회생을 위한 적극적인 외자유치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우리와 리비아의 경제협력 가능성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임.
 - 우리의 리비아 건설진출은 현재 한-리비아 경제협력에서 가장 활성화되어 있고 미래 협력 가능성도 매우 큰 분야임.
 - 또한 리비아의 원유수출 확대로 대외결제능력이 향상될 경우 우리의 리비아 수출도 활기를 띠게 될 것으로 기대됨.
- 리비아는 경제회복을 위한 인프라 및 산업기반 구축에 대한 정책적 의지가 강력한 만큼 리비아 건설시장은 많은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
 - 리비아는 오는 2020년까지 국민소득 배증을 목표로 1,200억 달러를 투입하는 중장기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건설시장의 확대가 예상됨.
 - 대수로 공사 3, 4단계사업, 서부리비아 가스프로젝트, 북아프리카 철도망 건설사업 확충 등이 향후 10년간 리비아 건설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됨.
- 한국건설업체는 최근까지 리비아에서 대수로 공사나 도로건설 등의 시공분야

에 진출했는데 이제는 시공분야에서 가격경쟁력이 크게 약화되었기 때문에 고부가가치부문에 진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토목이나 건설의 시공분야에서는 저임금을 기초로 한 중국과 터키, 이집트 등 인접 국가들의 진출이 최근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 한국기업은 중위의 기술수준이 요구되는 고부가가치 부문인 설계, 타당성 조사 등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와 석유 및 가스개발과 관련된 플랜트부문 진출에 주력하는 것이 유리할 것임.

□ 사업수주 여부는 기술력이나 가격경쟁력과 같은 경제적 요인 이외에도 유력인사에 의한 지원 등과 같은 비경제적 요인에 의해서도 좌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사회주의적 관행, 경직된 관료주의, 위원회 형식의 독특한 조직운영원리 등 다른 국가와는 다른 시장특성을 파악하여 현지실정에 적합한 경영전략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함.